



천국에 있는 비기독교인들, 즉 교회 밖의 사람들

318. 일반적 견해에 의하면 교회 밖에서 난 사람들, '이교도' '비기독교인'이라 불리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든 것은 다음 한 가지만으로도 확실히 알 수 있다. 주의 자비는 보편적이며 모든 사람을 향한 자비라는 사실이다. 또 비기독교인들은 이들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한 교회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사람으로 태어나며, 또 그들이 주를 모르는 것도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것이다. 밝은 이성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은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도록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는 사랑 자체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가 있도록 섭리하시고 그 종교에 의해 신성과 내적 삶을 인식할 수 있게 섭리하셨다. 자기 종교에 따라 사는 것이 곧 내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람은 신성을 바라보게 되며, 사람이 신성을 바라보는 만큼 그는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에 대한, 즉 외적 삶인 세속적 삶에 대한 집

착을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319. 비기독교인도 기독교인과 다름없이 구원받는다든 것은 사람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천국은 사람 안에 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사람 안에 있는 천국이란 신을 인식하고 신의 인도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모든 종교의 시작이자 근본은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신의 존재를 시인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예배를 중시하며 따라서 어떻게 예배해야 사람이 신께 받아들여지는지 가르친다. 이것이 사람 마음에 자리잡으면, 즉 이것을 바라고 사랑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비기독교인도 기독교인만큼 도덕적인 삶을 살고, 많은 경우 기독교인보다 더 선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사람은 신성을 중시해서 또는 세상사람을 의식해서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 이때 신성을 중시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두 삶은 겉으로는 똑같을 수 있다. 그러나 내적인 양상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는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는 구원하지 못한다. 신성을 중시하여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은 신성의 인도를 받는다.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본성을 따른다.

(2)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종교에 즉 신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동기로 악을 자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법이 두렵고 평판, 명예, 이익을 잃을까봐, 즉 자신과 세상을 생각해서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적 동기로 악을 자제하는 것이며 자기자신을 따르는 것이다. 후자의 생활은 자연적이고 전자의 생활은 영적이다. 그 도덕적 생활이 영적인 사람 안에는 천국이 있다. 그러나 도덕적 생활이 단지 자연적이기만 한 사람 안에는 천국이 없다. 천국은 위로부

터 유입되어 사람의 내면을 열며 다시 내면에서 외면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반면 세상은 아래에서 유입되어 외면을 열지만 내면은 열지 못한다. 자연계에서 영계로의 유입은 없으며 오직 영계에서 자연계로의 유입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면은 닫힌 채로 있다. 이상으로 보아 누가 그 안에 천국을 받으며 누가 받지 않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 그러나 한 사람 안의 천국은 다른 사람의 천국과 같지 않다.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에 따라서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천국이 다르다. 신을 존중하여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적 진리도 사랑한다. 선과 진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은 비록 세상에 살 때 진정한 진리를 몰랐지만 영계에 가면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320. 비기독교인 중 자기 종교에 따라 이웃사랑의 선한 삶을 산 어떤 영이, 기독교인 영들이 서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영들은 사람보다 더 철저하고 예리하게, 특히 무엇이 선이고 진리냐에 대해 추리하기 때문이다). 그 영은 이런 논쟁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외관과 오류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영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내가 선하면 선함 자체로 진리를 알 수 있으며 모르는 것은 배울 수 있다.”

321. 나는 많은 경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덕적으로 살고 자기 종교에 따라 순종과 겸손과 서로간의 이웃사랑으로 살았으며 그래서 양심을 지니게 된 비기독교인들이 내세에 가면 천사들이 이

들을 받아들여 정성을 다해 선과 신앙적 진리에 대해 세심히 가르쳐준다. 이 사람들은 일단 배우고 나면, 겸손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흡수한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신앙적 진리에 위배되는 뿔아버려야 할 그릇된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특히 주님을 보통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주님을 함부로 여기는 관념은 더욱 없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셨다는 말을 들으면 즉시 수궁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신을 온전히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한다. 주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신적 진리다. 그러나 그 말은 모든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고 모든 행성에 사람이 가득한데, 그들 중에 주께서 우리 지구 사람으로 오셨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도 그들을 주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이 사람 모습으로 계신 신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책자 《우주 안의 지구들》에 자세히 밝혔다.

322. 기독교인의 경우처럼 비기독교인 가운데도 현명한 사람과 단순한 사람이 있다. 그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의해 나는 몇 시간 또는 며칠간 양쪽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비기독교인 중에는 고대인들처럼, 특히 아시아에 크게 자리잡았고 거기서 여러 민족에 전파된 종교인 고대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없다. 이들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현인들 몇 사람과 아주 가깝게 대화하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다. 당대 뛰어난 현인들 중 한 사람이자 학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사람을 만난 나는, 다양한 주제를 놓고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 어떤 이유들로 인해 그가 키케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현인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와 지혜, 지성, 질서, 성경말씀, 그리고 끝으로 주님께 관해 얘기를 나누었다.

(2) 지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삶의 지혜 외에 다른 지혜는 없으며 지혜는 삶 외에 다른 것에 입각할 수 없다. 또 그는 지성이란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고, 질서는 지존자이신 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했으며 그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지혜이며 지성이라고 말했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성서의 예언서에서 몇 구절을 읽어주자 그는 굉장히 기뻐했다. 특히 모든 이름과 낱말이 내적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아주 좋아했고 현재의 지식인들이 이런 연구에 흥미가 없다는 사실을 놀라워했다. 나는 그의 사고와 마음의 내면이 열려있음을 분명히 보았다. 그는 내적으로 너무도 감동하여,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신성함이 느껴져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노라고 했다.

(3) 마지막으로 그와 주님께 관해 대화하면서 나는 그에게 주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잉태되었다는 것, 모친에게서 받은 인성을 벗으시고 신적 인성을 입으신 것,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주님께 관해 많이 알고 있었고 인류가 구원되려면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느끼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계속 어떤 악한 기독교인 영들이 여러 가지로 휘방하였지만 그는 거기에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들이 세상에 살 때 그 주제에 대한 옳지 않은 관념들에 빠졌기 때문에 그 관념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단순 무지한 사람도 받아들이는 확실한 진리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그는 말했다.

223. 고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당시 남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에 속했던 이들이었다. 처음에 멀리 앞쪽에 나타난 그들은 내 생각의 내면을 지각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많은 내용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 생각 속의 한 가지 개념을 보고 그들은 사고 계열 전체를 파악할 수 있었고, 기쁨을 주는 지혜들을 아름다운 표상들과 결합시켜 그 생각 안에 채워 넣었다. 이로써 그들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에 속했음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고대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자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나는 그들의 기쁨과 감사의 본질을 느낄 수 있었다. 주로 그것은 그들이 들은 성경말씀 전체가 낱낱이 천국적이고 영적인 것을 표상하고 상징한다는 사실이 주는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살던 시대에는 생각하고 말하고 글쓰는 방식의 본질이 이와 같았고 그것이 그들 지혜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224. 그러나 오늘날의 비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고 대부분 마음이 단순하다. 그렇지만 서로간의 이웃사랑으로 산 사람들은 내세에 가서 지혜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한두 가지 보기를 들어보겠다. 내가 사사기 17, 18장의 미가에 대한 내용과, 단 지파가 새긴 우상과 드라빔과 함께 레위인을 데려간 내용을 읽고 있을 때, 육신으로 사는 동안 우상을 섬겼던 한 비기독교인 영이 나타났다. 그는 미가가 당한 일과 단 지파가 우상을 가져갔을 때 미가가 느낀 슬픔에 대해 유심히 듣고는 심적 고통을 느끼고 슬퍼서 어쩔 줄 몰랐다. 그때 그의 슬픔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애정 속에 있는 순진함도 느껴졌다. 거기 있던 기독교인 영들은 그를 지켜보며 우상숭배자가 어떻게 그리도 동정심 많고 순수할 수 있는지 의아해 했다. 후에 선한 영들 몇이 그와 얘기하면서, 새긴 우상을 예배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능력이 있으며, 우상을 떠나야 하

고, 하나님이 온 하늘과 온 땅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이 말을 들은 후 그 비기독교인 영의 경배의 내적 본질이 나에게 교통되어 내가 그것을 느끼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기독교인의 경배보다 훨씬 더 거룩한 것이었다. 이를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이 더 쉽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확실하다. 누가복음의 주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13: 29,30).

그것은 그 비기독교인 영의 상태가 신앙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내적 애정으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사랑에서 우러난 자비가 있었고 그의 무지에는 순진성이 있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신앙의 모든 것을 즉시 기쁨으로 받게 된다. 그 후 그는 천사들 무리에 들어갔다.

325. 어느 날 아침 멀리서 합창 소리가 들렸다. 그 합창이 표상하는 것들을 보고 나는 그들이 중국인임을 알게되었다. 거기 털이 긴 염소, 수수떡, 상아수저, 공중의 성 등의 영상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싶어 했다. 나와 만나서는 그들은 나하고만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그들의 생각을 내보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거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손님으로 왔으면서 단독으로 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함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그 언짢음을 감지하자, 자기들이 이웃을 침해했는가, 그리고 남의 것

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는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세에서는 모든 생각들이 서로 전달되므로 나는 그들 마음의 흔들림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했을 가능성을 깨닫고 부끄러움과 그밖의 값진 애정들을 느껴 생겨난 마음의 동요였다. 그것으로 그들에게 이웃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곧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나중에는 주님에 관해 얘기했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모종의 반감이 있음을 감지했다. 그러나 거기엔 이유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 반감은 그들이 세상에 살 때 형성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보다 악하게 살고 이웃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주님'이라고 하자, 그들은 내적으로 감동했다. 그 후 천사들이 그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는 이 세상 어떤 교리보다 더 사랑과 이타심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적은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비기독교인 중에 이 세상에 살 때 그들이 자기 종교에 어긋나기 때문에 혐오하는 간음, 증오, 다툼, 술취함 등의 행위들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습성이 되어 있고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악하다는 것을 대화나 소식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내세에 들면 주님의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데 다른 이들보다 소극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에게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 신앙 자체와 마찬가지로 전혀 다르게 살라고 한다는 것과, 그럼에도 기독교인의 삶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데 있어 비기독교인의 삶보다 못하다는 것을 배운다. 이것을 알고 나면 그들은 주님의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경배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걸린다.

326. 어떤 형상이나 우상, 새긴 물건을 숭배한 비기독교인들이 내세에 들면 그들의 환상이 제거될 수 있도록 보통 그들의 신이나 우상을 대신하는 어떤 영들에게 인도된다. 이 영들과 며칠간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환

상이 벗겨지게 된다. 또 사람을 숭배한 사람들은 때로 그들이 숭배한 인물 앞으로 인도된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을 숭배한 많은 유대인들의 경우가 여기 포함된다. 이들은 그들이 숭배했던 인물들이나 그 인물을 대신한 영들 앞으로 가게 된다. 그들이 가서 보고 그 인물들 역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으로 전혀 자기를 도울 힘이 없음을 알고 나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후 각자 살아온 삶에 따라 알맞은 곳으로 가게 된다.

천국에서는 비기독교인 중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사랑받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천국의 선과 진리를 더 즉각 받아들인다. 특히 그들은 신앙 있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한다. 기독교인에게는 신앙의 교리가 있으니, 만일 그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즉 그들 말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독교인에게는 신앙 있다는 말이 해당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327. 나는 고대교회 사람 몇 명과도 대화를 했다. 홍수 이후에 형성돼 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디오피아 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 필리스틴 그리고 멀리 튀루스³⁹⁾와 시돈, 그리고 요단강 양안의 가나안 땅에 두루 퍼져 있었던 종교를 고대교회라고 부른다. 이 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신앙에서 비롯된 선함을 내적으로 받아들였었다. 그랬다가 그만 타락하여 우상숭배자들이 되었다. 이 영들은 왼쪽 앞부분 어두운 곳에서 비참한 상태로 살고 있다. 이들의 말은 합리적 사고가 거의 없어 한 가지 음정만 내는 피리소리 같다. 그들은 그곳에 수세기에 걸쳐 머물고 있으며 가끔 정도가 낮은 어떤 용도로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들었다. 이들을 보고 나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생각했다. 겉으로

.....

39) 옛 페니키아의 항구도시.

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세상과 자기를 숭배하고 마음 속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우상숭배자인 그들을, 내세에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328. 주님의 교회는 전세계에 퍼져 있고 따라서 전(全)인류적 교회이며,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웃사랑으로 선하게 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말씀이 존재하고 그 말씀에 의해 주님을 알고 있는 교회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 있어 사람의 심장과 폐 같은 역할을 한다. 인체의 모든 기관과 지체가 심장과 폐로부터 그 형태, 위치, 결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 앞(308항)에서 설명한 바 있다.